

## 제주 辛丑 聖敎亂에 관한 연구\*

이 정 훈\*\*

### I. 서 론

고종 황제가 퇴위한 다음해인 1908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제주도 선교가 시작되던지 올해로서 80년이 다 되어간다. 외국 선교사에 의해 신교의 복음의 씨가 제주땅에 처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최초로 배출한 7인의 목사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에 의해 제주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한 일이며, 더우기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은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결의에 의해, 처음으로 장립한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場이 곧 제주도였다(강문호·문태선 1978:30)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제주 선교 80년사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제주 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겨 볼 때, 교회의 발전, 성장과정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육지의 타지방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교세가 성장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제주 선교에 있어서 타지방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폐쇄적·배타적 성격과 아울러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면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유한 민간신앙, 샤머니즘 등이 깊게 뿌리를 내

\* 본 논문은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학전공으로 1986년 10월에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투고되었으며, 본 편집위원회의 편집 방침에 따라 편집한 것임.

\*\* 본 논문의 내용은 1987월도 10월 24일 제31차 제주도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리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제주선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제주선교의 역사를 자세히 더듬어 볼 때, 근본적인 제주선교의 저해요인이 단순히 제주도민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서 온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속담에 당 5백, 절(寺) 5백<sup>1)</sup>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중하였고, 종교적 심성이 강하여 어떠한 참되고 올바른 새로운 종교를 알게 되면, 종래의 미신 행위를 버리고 이 새 종교를 믿게 될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유홍렬 1962:937). 다시 말해 선교의 저해요인이 신앙의 이질감이나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거나 도민들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선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 사건에 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기독교 선교 7년전인 1901년에 발생했던 ‘辛丑 聖敎亂’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선교 70년사’에도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본 도민의 오해는 더욱 커졌고, 이때의 감정이 크게 작용되어 후일 천주교 뿐만 아니라 선교의 복음 전도사업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문호·문태선 1978:26)

실제로, 광무 5년인 1901년 5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성교난’은 ‘李在守의亂’ 또는 ‘辛丑年 濟州民亂’이라고도 하여 지금도 제주도민의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도들이 서로 적이 되어 700여명의 희생자를 내었던 이 역사적인 비극은,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최근세의 사건으로써,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주교의 일대 수난사였고, 뿐만 아니라 이 ‘성교난’은 여러가지 복잡한 배경과 횡포속에서 짓눌려 살아온 민중의 반항이 한꺼번에 폭발한 가운데 전래없는 희생자를 내었고, 더우기 외국인 신부까지 관련됨에 따라 국제문제로까지 번지는 후유증을 치뤄야 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근세사에 여러모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강용삼 외 1984:117-118).

1) 제주지방 사람들은 원래 종교심이 강하여 무당, 뱀신 등을 몹시 숭배하였으므로, 가는 곳마다 신목(神木), 신당(神堂)이 많이 있었다.

이 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 입장에서 다루어졌다.

하나는 천주교측의 입장으로, 무지몽매한 제주도민들의 경거망동으로 인한 천주교도의 희생을 강조하여 ‘辛丑敎難’, ‘濟州敎難’이란 명칭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고<sup>2)</sup>, 또 다른 입장은 제주 향토사가들의 입장으로<sup>3)</sup>, 외래종교에 대한 토박이 민중의 저항으로 보는 즉, 반외세, 반봉건적 성격을 띤 민란으로 보는 측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사료에 충실하여, 민란 전의 제주도내의 정황, 민란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 및 프랑스 비호하에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회의 상황 및 그에 따른 교폐, 또한 외래종교를 받아들이며 갈등을 겪는 제주도민들의 자세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난을 분석 하려고 한다.

특히 이 난이 후에 제주도 내에서 기독교의 복음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제주 선교의 부정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하나의 큰 뿌리로서의 ‘성교난’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도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제주도의 미래 선교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희망이다.

## II. 제주도 천주교 유입(流入)과 그 배경

### A. 제주도 천주교 유입 직전의 국내 및 도내 정세

#### 1. 소란했던 국내 정세(1876~1884)

제주도에 천주교가 유입되기 직전의 구한말의 국내정세는 한마디로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1876년 일본과 소위 병자수호(丙子修好)라는 이름아래 국교를 맺은 이래,

2) 이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과 저서로는 유흥렬 교수의 “高宗治下 西學 受難의 研究”와金玉姬 수녀의 “濟州島 辛丑年 敎難史”가 있다.

3) 제주 향토사가라는 金泰能—“濟州島史論攷”과 홍순만 등이 꼽힌다. 이들의 입장은 Ⅲ장에 상세히 나타나므로 Ⅲ장에 참조할 것.

이어서 영국, 미국 등 각국과 외교관계가 시작되었고, 1882년에는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 정국을 뒤흔들었다. 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폭군과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반항의 깃발을 들고 여러가지 민란을 일으키는 등 소란스러운 국내정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는 대원군이 밀려나가고 민비 일파가 나라를 좌우하는가 하면, 김옥균, 박영효를 중심으로 개화파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등 자못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속에서 한국은 점점 국제무대에 널리 알려지는 동시에, 또 국제사회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격변하는 국내정세 속에서 신교(信敎) 자유의 길은 넓게 열려지고 있었다(이호운 1970:36-41).

## 2. 儒敎의 자유회독과 천주교회의 발전

1801년 신유(辛酉) 박해로 시작하여 1886년 병인(丙寅) 박해까지 큰 박해만도 전후 4,5차례나 겪어서 한국의 천주 교회는 거의 전멸되는 듯 했으나, 1873년에 대원군이 정계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1876년 2월에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은 후부터 차차 박해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여 한국의 천주교회는 전멸의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이호운 Ibid:42).

그러나 한국의 천주교회가 이 동안에 후퇴를 하거나 멈춰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모로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갔고, 큰 타격을 받아서 힘을 잃었던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고 기회를 봐서 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파리에 있는 카톨릭 선교부는, 시련과 박해로 인해 타격을 받은 한국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격려하며, 교리를 가르치려고 계속 신부들을 보냈는데, 그 제 1진으로 온 사람이 1876년 5월 드게뜨(崔) 신부와 블랑(白) 부주교로, 이들은 장연으로 돌아와 용인에서 전교활동을 하였다(유홍렬 1963:359). 그리고 7월에는 리델(李) 주교가 최지혁의 안내를 받아 두세(丁) 신부와 로베트(金) 신부를 거느리고 입국하여 전교하던 중에 다음해 1월에 리델 주교와 최지혁씨가 체포되어 주교는 재판을 받고 만주로 추방을 당했으며, 최지혁씨는 병사했다(유홍렬 Ibid:360). 1879년 공주에서 전도하던 드게뜨 신부도 역시 체포되어 만주로 추방을 당했다(유홍렬 Ibid:360).

한편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정세는 교회를 위하여 날로 호전되어 1881년 5월에 기독교 신앙을 사교로 낙인찍어서 정죄한 ‘척사운음’은 무의미한 공문서가 되었고, 1871년에 대원군이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에 세웠던 ‘척화비’는 1882년 한미통상조약을 계기로 없애버리게 되었다(이호운 1970:43). 그리고 이 기간에 조선정부는 신부들이 체포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대우하여 고작 만주로 돌려보냈고, 대체로는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오히려 체포하는 관리를 나무라고 처벌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한국천주교회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묵인받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유홍렬 1963:361).

또한 1876년 일본과의 통상을 맺은 이후, 한국정부는 서구 각국과도 계속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즉, 1882년(고종 19년)에는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어 1883년에는 한·영, 한·독 조약이, 이탈리아·러시아와는 1884년(고종 21년)에, 그리고 프랑스와는 그보다 2년 후인 1886년(고종 23년)에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김창문·정재선 1969:237).

그런데 이와 같은 각국 열강과의 국교를 맺게됨에 있어서 종교 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1883년 11월에 맺어진 한·영 조약에서 영국은 이 조약에 “영국 상인은 이상에 정한 장소에 나가서 집을 세우고 棧房을 낼 수 있으며,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4조 2항) (김창문·정재선 1969:237 재인용 高宗實錄卷二十 癸未十月二十七日 韓英條約條)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조선 구내에 있어서 자국인에 한하여 信敎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후 조인된 한·불 조약에서는 영국과의 조약과 같이 프랑스인에 한하여 信敎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제 9조 2항중에 다음과 같이 ‘敎誨’라는 문구를 특히 넣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凡有法國民人 前住朝鮮國 學習或敎誨 語言文字格致律例拔藝者 均得保護 相助以昭兩國敦篤友誼 朝鮮人 前住法國亦照此一律優待”(유홍렬 1963:366 재인용, 增補文獻備考 卷一百八十二 交聘條).

여기서 ‘敎誨’라는 문구는 두말할 것 없이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문구가 이제까지의 극비밀리에 천주교를 조선인들에게 가르치던 사실을 정당화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유홍렬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유홍렬 1963:366).

그리고 이 조약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통상을 목적으로 서울, 인천, 원산, 양화진을 왕래할 때에는, 한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제 1 조 1항에서 밝히고 있다(유홍렬 1963: 367-368).

이로써 프랑스 신부들은 적어도 통상이 허락된 지방에 있어서는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는데, 때는 한국교회 창설 후 103년만의 일이었고, 한국교구 설정 후 57년만의 일이었으며, 프랑스 신부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후 52년만의 일이었다(김창문·정재선 1969:237).

이러한 시기에 불랑 주교는 바로 한·불 조약의 비준이 교환되던 그 해로부터, 이미 사두었던 종현의 언덕밭이 땅을 깎아내려 주교덕과 명동성당의 터를 닦기 시작하였고, 1885년 이래 원주군 부흥골과 여주군 강천에 설치하였던 신학당을 통합하여, 1887년에 서울 용산의 함벽정으로 옮기어 “예수성심 신학교”라 하였다(김득황 1963:346). 그리고 이 해에 조선천주교회의 지도서를 공포하였으며, 종래 일본에 있던 성서 출판소를 서울 정동으로 옮겨 많은 교리책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1888년에는 성바로 수녀회의 수녀 4명을 맞아 명동에 고아원, 양로원을 개설하는 등 전교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유홍렬 1963:369).

1890년 불랑주교의 돌연한 서거로 조선교구의 8대 주교로 임명을 받은 당시 파리 신학교의 교감이었던 뫼텔(閔) 신부는, 1891년 2월 많은 교직자와 교인들의 환영속에 명동에 마련된 신축사옥에 집을 풀게 되었다(유홍렬 1963:370-371).

당시 뫼텔 주교가 재입국하던 1891년 천주교회의 교세는 교직자가 25명, 신학생이 20명, 교인 총수가 19,015명, 성당이 8개소였는데, 10년 후인 1900년에는 이 교세는 2배 이상으로 늘어 외국인 교직자가 40명, 한국인 신부가 12명, 신학생이 26명, 교인 총수가 42,441명, 성당이 41개소로 되었으니(유홍렬 1963:371), 당시 천주교의 교세가 크게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졌다.

### 3. 제주도 내의 정황—계속되는 민란

제주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중세에는 관리가 파견되면서 ‘良守의 亂’을 비롯하여 십여차례의 민란이 일어났었고, 근세 조선시대에는 哲宗末까지 470년동안 ‘沈來後의 모반사건’, ‘梁濟海의 모반사건’ 등 몇차례의 소요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별로 큰 민란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38).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에는, 세도정치에 의해 중앙에는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지방에는 착취와 횡령이 자행되는 등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였으므로, 민생고에 시달린 도민들이 1882년에 큰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난을 ‘철종조 제주민란’이라 하는데, 이 민란을 시작으로 1890년에 ‘金志의 난’, 1896년 ‘강유석과 송제홍의 난’, 1898년 광무 2년에 ‘房星七의 난’ 등 큰 난이 연이어 일어났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38).

#### a. 철종조의 제주민란<sup>4)</sup>

姜悌儉이 중심이 되어 通文을 돌리고 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일어났던 민란으로, 수만명의 농민들은 제주성을 함락시켜 목사인 任憲大를 성토하여 내쫓고, 평소애 작폐가 심했던 아전 세사람을 몰래로 처죽이고, 官印과 공문서는 불태워 버렸다(Ibid:338-339).

그러나 이 난은 조정에서 파견된 목사 鄭岐源과 濟州 按察使겸 察理使인 李建弼에 의해 민란 주도자인 강제검과 김홍채는 교수형을 당하는 등 종식되었다(Ibid:340).

이 제주민란은 철종 13년인 1862년 9, 10, 11월 3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간 농민 중심의 반 봉진적 운동이었다고 권인혁 교수는 이 민란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권인혁 1985:871).

또한 제주도 향토사가인 홍순만은 이 민간의 원인으로, 첫째 부역의 불공평, 둘째 場稅, 火田稅의 과다징수, 셋째 환곡의 作弊, 넷째 監色에 대한

4) 이 난은 壬戌年에 일어났다고 “壬戌民亂”이라 하기도 하고, “姜悌儉亂”이라 부르기도 한다.

뿐만, 다섯째 箭竹供出에 대한 반발을 들고 있으며, 이 민란은 그해 5월에 진주에서 일어나 三南지방으로 퍼졌던 육저의 민란에 자극을 받고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38).

#### b. 金志의 亂

고종 27년인 1890년 12월에, 전임목사 송구호나 신임목사 조균하가 모두 탐관오리로 민생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민중의 원망과 분노가 크게 늘어, 김지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크게 일어났던 민란이다. 홍순만은 이 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들은 제주성을 점거하고 官衙를 파괴하는 한편 민원대상이 되었던 관리들을 추방하였다. 그러나 이 민란은 별로 큰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10여일동안 계속되다가 열기가 수그러들고 일단 진정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난을 지휘하던 김지 자신이 관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난의 확대를 일부러 막았다는 설이 있으며, 또 이런 사실을 민중들이 알고 실망하여 더 기대를 걸지 못하고 스스로 해산해버린 사실 때문이었다.

이 사건 때문에 목사 조균하는 파직되었으며 후임으로 이규원을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도록 했으나 이 민란을 전후한 도민의 동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다”(홍순만 1983:73)

#### c. 宋啓弘·姜瑜爽 등의 民亂

갑오경장으로 나라의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제주에도 목사 대신에 관찰사를 두게 되고,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무관과 순검을 두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의 강행에 반대하여 1896년 3월에 송유석·송계홍 등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여타의 난의 성격과는 다른 좀 특이한 성격이 민란이다(홍순만 Ibid: 73).

이러한 개편과 새 제도는 갑오경장의 여파였던 것인데,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격하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 시위가 순검들의 제지로 어렵게 되자, 송계홍·강유석 등을 중심으로 군중 수천명이 새로 설치한 경무청에 난입하여, 모든 기물을 부수고 공문서를 불태우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이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41).



또한 그들은 6년전 난을 주동했던 김지를 붙잡아 그때의 비행을 규탄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는데, 이 난은 前府使 金潤柄과 大靜郡守 蔡龜錫이 이끄는 官軍과 唱義軍에 의해 가까스로 진압이 되었다(Ibid:341).

d. 房星七의 亂

1896년에 도입한 李秉輝 牧使와 이속의 수탈로 민중의 원성이 높았을 때에 토지세의 부당함과 여러가지 악패를 들어 1898년에, 방성칠이 선동하여 화전민과 가난한 농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났던 난이다(홍순만 1983:73-74).

‘朴用厚’는 그의 저서 ‘濟州道誌’에서 ‘방성칠의 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星七은 전남 同福郡 사람인데 본도에 들어와 살면서 房杜의 비결을 가지고 반역의 뜻을 품어 민심을 선동하여 오다가, 濫稅를 고치겠다고 하여 민중을 규합하고, 자기 심복 부하중에서 힘이 센사람 수십명을 택하여 禦南軍이라 칭하고 제주성에 침입하여 軍器를 奪取하고 목사를 추출하고 印符를 奪取하였다. 星七은 제주를 일본에 附屬시키려고 일본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中洋에 達하기 전에 강풍이 일어 어쩔수 없이 되돌아 오게 되었다. 이때 전현감·홍재진·송두옥 등이 倡義所를 설치하고 성중의 장정을 동원하여 성칠과 난의 주동자를 잡아 죽였다. 목사 이병휘는 성을 지키지 못한 탓으로 파면되었고, 3월에 목사 朴用元이 찰리사를 겸하고 와서 무마하였다”(박용후 1976:69).

이 방성칠 난이 일어난 1898년에, 뒤에 다시 언급이 되지만, 양 베드로가 영세를 받고 제주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고, 거듭되는 민란과 ‘방성칠의 난’ 등 그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축 성교난’이 일어난게 되었던 사실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B. 제주도 천주교 유입(流入)과 그 경위

1. 제주도 도민들과의 천주교 접촉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유입(流入)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대개 1899년에는 선교사들이 제주에 입도(入島)하여 전교(傳敎)한 기사가 나타나 있다(김옥희 1980:22).

그러나 제주도 도민들과의 천주교 접촉은 훨씬 전으로 미루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근거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제주도에 최초의 천주교 전파의 기록은 김석익(金錫翼)씨의 ‘증보 탐라지(增補 耽羅誌)’의 부기문 전설조(附奇聞 傳說條)에 나오는 것으로서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 천주교와 접촉한 사람은 ‘김복수(金福壽)’라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임진왜란 때(1592~1598)에 풍파를 만나 안남국(安南國)에 표착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일본 사신을 따라 일본의 오사카 성(大阪城)으로 가서 구라파왕(仇羅婆旺)의 사신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교(倭敎)를 믿음과 교리책(方書) 및 기도문 책(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에, 다행히 배편을 얻어 제주도로 돌아왔지만 그 후의 사정은 알 길이 없다(김석익 1954:280, 유홍렬 1962:935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황사영(黃嗣永)의 부인인 정난주(丁蘭珠) -〈교명(敎名)은 마리아·정약현(丁若鉉)의 딸〉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그녀의 묘가 지금도 제주도 모슬포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서 유추해 볼때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씨는 천주교 관계의 박해로 이곳에 유배온(1801년)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적어도 그 자신만이라도 신앙생활을 보존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옥희 1980:24)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천주교와의 접촉에 관한 기사들을 C.H. Dallet의 교회사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1858년 8월 5일자 장 Berneux주교의 파티외방 전교회에 보고한 서간의 기록을 간추려 보면, 펠릭스 베드로(Felix Dierre)라는 제주도민이 탄 배 한척이 1856년 풍랑을 만나 중국의 광둥지방으로 표류하던중, 같이 배를 탔던 5명의 친구를 잃고, 다행히 영국배에 구제되어, 그는 홍콩에 있던 천주교 신부덕으로 넘겨져 병을 치료받던중 조선인의 폐낭 유학생을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영세 입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후 펠릭스 베드로는 1858년에 조선에 귀국하여 페롱(Peron) 퀴신부와 최양업(崔良業) 신부를 만나 교리책을 얻는 한편, 장 주

교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제주도의 도민 20명과 그의 가족 40명을 개종시켰다는 기록이 있다(김옥희 1980:25-26).

김옥희씨가 쓴 '신축년 교난사'(辛丑年 敎難史)에도 Mutel 주교의 보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1866년 이전 이 섬에 몇몇의 크리스찬이 살았으나 선교사들이 1899년에 Peynet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가 이 섬에 들어갔을때 그들의 자취나 기념 될만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866년 이전의 크리스찬의 흔적이란 것이 바로 펠릭스 베드로와 그 신자들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Ibid:25-26).

이상의 사실로 보아 육지에서 철종시대를 맞이하여 한때 천주교가 성행되던 때에 제주도에서도 펠릭스 같은 열심있는 교인이 나타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결과 20여명의 개종자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그후 사정은 알길이 없는데 아마도 병인교난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갔거나 이 교난으로 인하여 전교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Ibid:26).

## 2. 제주도에서의 본격적인 천주교의 전교(傳敎)

1886년 프랑스와의 한·불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뫼텔 주교 시대에 이르러 제주도에도 1899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즉, 1898년경에 제주도 중문면 새달리에 거주하는 양베드로라는 사람이 육지에서 영세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교함으로써 선교사를 맞이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다(유홍렬 1963:374).

1935년 9,10월호의 '카톨릭 연구' 지에는 최선홍 신부의 "제주도 학살사건과 본당 연혁"이라는 사화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 본문중에 나온 제주 전교의 사실을 轉記하면 다음과 같다.

"도민은 일반으로 순박하여 공경(恭儉)해야 교사(郊社)의례로 자기 정신과 양심을 지배하더니 고려 충렬왕 2년에 불교와 잡신교가 침입하여 도민성을 침란케 하였고, 이조 문치(文治)의 화(化)가 선정됨에 따라 유교가 대흥하였다가 그 말년에 윤리가 문란하던 차 광무 3년 강생 1899년에 이 남쪽나라 외로운 섬에도 쓸쓸한 겨울 바람이 끝을 맺고 본도 중문면 새달리에 거주하는 「랑 베드로」가 육지에 머무를때 영세 입교하여 열심 수계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신아오스딩」 「신 바오로」 형제와 대정면 보성리에 사는 「김생원」과 「강 도비아」에게 전교하여야 네 가장이 열심 열심

수제하나 목사 없음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중 민주교 각하께서 「가오로 배신부」와 「아오스딩 김신부」를 제주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최선홍 1935:177-78).

이 기사에 나오는 페이네 신부는 그때 26세의 청년 사제로서 2년전에 내한해 하우고개 등 선교지롤 거쳐 제주도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고, 김원영 신부는 새로 신품(神品)을 받고 제주도에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옥희 1980:26).

두 신부는 1899년 5월 23일 배편을 이용하여 제물포를 떠나 목포를 거쳐 26일 아침 다섯시에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들 두 신부는 그해 12월 8일부터 우선 제주읍에 본거를 두고 전교하던 중 페이네 신부는 제주의 풍토가 맞지 않아 1900년에 다른 곳으로 전임되었고, 이어 그해에는 라쿠르쓰(Marcel Lacrouts) 구마슬(具瑪瑟) 신부가 부임하였고, 다음해인 1901년 5월 뭇세(Jean-Germain Mousset) 문제만(文濟萬) 신부가 부임하여 구신부는 제주성내를 사목하고 김신부와 문신부는 정의군의 서흥리의 한논(大畝)에 성당을 담당하였던 것이다(유홍렬 1963:375-376).

1900년 3월 22일자 김원영 신부가 Mutel 주교에게 보냈던 편지에 의하면 제주도에 교우 수가 5명인데 부활때까지의 10명 내지 15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김옥희 1980:29). 제주도에서 10개월간의 전교에 성과가 고작 5명에 불과했으니 얼마나 그당시 선교가 어려웠던가를 이 편지의 내용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1901년 Mutel 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봄에 우리들로 인해 온전히 즐거워 했고, 희망스러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었다. 2년동안의 복음 전파는 우리들에게 242명의 영세자와 6백명 내지 7백명의 영세자를 가질수 있었는데, 이들은 고스란히 사탄의 권력밑에 있었던 영혼들이었다.”

고 기록하고 있어(김옥희 1980:30) 1년 내지 2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신자수가 급증하는 등 제주도에서 천주교 세력이 갑자기 확대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교세가 급작스레 확장된 이유를 여러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김태능은 1962년 제주신문 ‘성교난’(聖敎亂)의 긴 기사에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서두에 조금 언급하고 있다.

“제주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지배자와 권력층에 대한 원망심과 반항심이 장구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있는 이 시점에 고종 광무초에 천주교가 처음으로 포교되기 시작하였다. 교회에서는 아들 불우한 주민의 입교자에 대하여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교우로 대우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천주교의 인자한 정신에 감격하였고 또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고 구원되고 있음을 기뻐하며 입교를 원하는 도민들도 많았다고 한다”(김태능 1962).

한편 유홍렬 교수는 언급하기를

“겨우 1년반 동안에 제주도에서 천주교가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편 정치의 부패문란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그때 제주도는 一牧三郡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목사가 三郡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 목사이던 李摩陸은 도민으로부터 1만냥의 돈을 私取한 죄로 1901년 1월에 면직되고, 3월 2일에 제주군수로 취임한 金昌濼가 한때 목사직을 겸하게 되었으며, 제주출신의 蔡龜錫이 1899년 8월 22일부터 대정군수를 지냈고, 또한 제주인으로서 제주군수를 지냈던 金熙胃가 1901년 3월부터 정의군수로 전임하게 되었다. 이때 특히 이상규에게 불행히 돈을 뺏긴 도민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부족된 왕실의 재정을 메꾸기 위하여 1900년경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 봉세관을 보내어 지금까지 없었던 각종 잡세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동년 가을부터 평안북도 사람인 姜鳳憲이 이 일을 맡아 봄으로써 도민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유홍렬 1963:376-377).

라고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갑자기 천주교에 입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원인을, 稅弊에서 오는 민생고에서부터 탈출구를 찾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옥희 1980:31).

그러나 1975년 10월 19일자 주간조선의 ‘역사적 산책’ 기사를 보면 천주교세의 급작스런 성장요인을 현저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1901년께 제주도에 있어 카톨릭 세력은 관권위에 있었고 프랑스 신부는 목사 상투위에 앉아 있었다. 3년전에 제주도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는 치외법권이 있음을 기화로, 목사가 집무하는 방에 구둣발을 신은채 들어가는 등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자주 했으며, 이 어긋난 행위를 관권이 다 잡을 수 없음을 알자 사이비 교도들이

늘어나 갖은 횡포를 다했던 것이다. 사이비 교도가 열전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소금가마니 하나 짊어지고 나온다. 해도 열전 사람은 아무말도 하질 못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왕실의 재정이 궁핍하여, 팔도 각지에 봉세관을 보내어 각종 세금을 징수하였었다. 1900년에 제주도에 파견된 봉세관은 강봉헌이란 자였는데, 이자 역시 탐욕하고 횡포가 심했기로 사이비 교도들은 이 강봉헌에게 붙어 제멋대로 私稅를 만들어 백성의 곡물음 후려가 사유를 채우는 일을 아울러 병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성당안에 형틀을 차려놓고 그들의 가렴주구에 응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死刑을 가했으며, 또 갖은 악행을 다하고서 성당에만 숨으면 판리가 그속까지 찾아 들수 없는 ‘노틀담의 사원’이기도 했다. 도둑질을 하고도 성당에만 숨으면 면죄가 되었던 것이다”(강용삼 외 1984:116-117).

이 기사를 살펴보면, 천주교를 빙자한 사이비교도들의 횡포가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예비신자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 등 천주교세의 성장요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장에 자세히 논술하겠지만, 성교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교계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원인 이외에 갑자기 천주교 신자가 늘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로 당시 제주에 유배해 왔던 識者들이 천주교에 많이 입교했던 사실을 들수 있겠다(김옥희 1980:32). 당시의 제주도는 중앙 정부에서 쫓겨난 양반들이 귀양살이 하는 유배지였고 유배당한 정객들의 집합소로서, 많은 인물들이 당시의 정부에 반감과 울분을 갖고 불우한 생활을 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사의 허무함과 인생관에 대한 사색에서 입교하기도 하였고, 프랑스 신부의 힘을 빌릴 목적으로 천주교회를 가까이 대해던 것이다.<sup>5)</sup>

당시의 제주도 총인구는 약 4만명으로, 당시 천주교가 1천명 가까운 교인을 가졌다고 계산해 본다면 제주도 총인구의 1/40이 천주교회에 다니고 있는 셈이었고, 북쪽의 제주읍과 남쪽의 한눈[현 남제주군 서귀읍 서흥리]에는 성당이, 각촌에는 간간히 공소가 설치되어 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발전하

5)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홍문관 교리를 지냈던 李容鎬, 李範驥, 崔享淳, 張允善 등을 들수 있다. 이 중 崔享順은 민중의 지탄을 받아 오다가 제주성이 함락되어 잔인하게 살해 당한다.

고 있는 상황이었다(유홍렬 1963:376).

### Ⅲ. ‘신축 성교난’ (辛丑 聖敎亂)의 원인

고종 38년(광무 5년)인 1902년 5월에 발생하여 제주도민과 천주교도들이 서로 적이 되어 피차간에 700여명의 희생을 내었고, 프랑수군, 그리고 일본 함선까지 개입되어 진압되고, 4년이나 걸려서 국제재판으로 매듭지은 사건이 바로 신축년 성교난<sup>6)</sup>[또는 ‘이재수 난’이라고도 함]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제주도는 전래의 고유한 민간신앙[할망당 무속 등]을 믿으며, 지극히 보수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농경생활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체로 도서민(島嶼民)이던 그러하듯이 제주도민은 새로운 신제도나 어떠한 탄압에도 타협치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자주 자급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양정규 1970:58).

그런데 이 신축 성교난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다. 즉 제주도내 향토사학자 [김태능·홍순만]등이 보는 입장과 천주교회측 [유홍렬·김옥희]의 입장인데 이 난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난의 성격규정 까지도 판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볼때 이 난의 원인을 보다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 3장에서는 먼저 조금씩 상반되는 두 입장을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마지막에 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서술해 보려고 한다.

#### A. 향토 사학자들의 입장

대표적인 제주도 향토사가로 꼽히고 있는 김태능과, 1982년 출판된 제주도지에 ‘천주교난’을 쓴 홍순만 등이 이 입장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6) 이 단란은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신축년(1901)에 천주교가 먼저 도민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혀 난이 일어났다 하여 일반적으로 “辛丑 聖敎亂”이라 부르며, 李在守가 주장했다고 “李在守의 난”이라고 하며, 천주교회측에서는 교도의 희생을 강조. “辛丑敎亂”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축 성교난”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겠다.

성교난의 원인을 ‘봉세관의 작폐’와 ‘천주교의 교폐’ 등 크게 두 요소로 보고 있다.

김태능은 난이 일어날 당시 제주도에 귀양 와 있던 한말 의무대신을 지낸 바 있는 金允植이 일기형식으로 썼던 ‘續陰晴史’나 황성신문에 실린 ‘內部視察 丁裕燮 報告’<sup>7)</sup> 등 보고서와, 김석익의 ‘濟州島 實記’ 그리고 이 난을 조사할 당시 아직 생존해 있던 인물들의 증언 등 국내사료를 중심으로, 성교난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난이 일어날때 당시의 도내의 사정과 경위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국가의 혜택은 열세하면서도 해외의 重鎮地이므로 방위의 중임이 부가되었고 방물 공납이 또한 강요되어 왔던 것이며 때로는 탐욕의 京來官이 遠隔島嶼을 기화로 도민에 대하여 억압과 학대의 예도 많았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 있는 이 섬에 고종 광무 초 천주교가 처음으로 포교되었다. (중략)

그러나 일부의 居民中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신부는 강대국이요. 또 조정에서는 당시 濟州守官에 대하여 “신부를 극진히 대우하라”(如我待)는 특명이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불량배들은 천주교의 교리도 모르면서 한때 신부를 이용하여 무슨 권세나 이익이나 관직을 얻어보려는 利慾之心을 품고 교회에 모여든 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경래 봉세관이 잡세를 濫執하여 농민과 어민을 착취 압박하였고, 목사 and 군수 등의 불법적인 착취 및 濟州牧書記 高千령이 천주교에 입교하는 등 [내부시찰 정유섭 보고] 관권의 포악이 심하였던 것이다”(김태능 1982:320-21).

이런 정황속에서 일어났던 성교난의 주요 원인으로 김태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래 봉세관의 남권(濫權)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세관 강봉헌이 각종 잡세를 남집하여 없었던 어업세를 거두었으며 또 墓松 巷 樹院木에 대한 樹稅와 靑草芳草에 이르기까지 정세하였으므로 임야를 가졌던 人民들은 산림을 일시에 작별해 버린일도 있었으며 ……(중략)……, 또 강봉헌은 執稅 監色과 舍音은 모두 교인을 전용하였는데(찰리사 황기연 보고) 그들의 작폐가 또한 많았다고 한다(牧使 濟疆查報)”(Ibid:322).

7) 1900년 12월에 내부시찰로서 본도에 취임하였던 정유섭의 보고를 말함.



계속해서 그는 성교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상무사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上記한 불량도배들의 입교자들은 봉세관과 결탁, 각종 소재의 토속신앙 시설이 있는 공유지를 매입, 경내의 신목을 벌채하고 신당을 부수었으며……어업세와 관련 있는 각 포구의 객주들을 위협하여 입교를 강요하였고 또 봉세관은 各浦所産의 해산물을 징세키 위하여 이를 교인들에게만 도매시켜 상인과 생산자는 매매치 못하게 하였고 또 어선에서 어물을 강취해 가는 일, 부녀자를 강탈하고 금전을 편취하기, 혹은 오래전에 이미 매도한 토지를 勸遷하기, 혹은 수백년 묵은 禁山의 수목을 함부로 작별하는 등등의 온갖 비행과 위법을 자행하였으며 또 교인들은 신당에 제사 지내는 일이나 무당이 굿하는 일에까지 간섭하고 금지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였다. 더구나 프랑스 선교사의 세력을 빙자, 교당과 분회소에 형구를 비치하여 비교인으로 교회와 교도를 비난이나 원망하면 린치를 가했으며 민·형사의 治理權과 판결권까지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한다. (중략)

도내의 물정이 이처럼 암담하여 三邑백성의 원성이 날로 높아갈 무렵에 이에 견디다 못한 대정군에서는 유지들이 일어나서 自衛團인 商務社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런즉 교도들과 봉세관과 執稅鑑色과 榷餉 등이 횡포와 濫權과 作弊에 고민하던 鄉邑의 백성들은 모두 상무사의 취지와 그들의 활동에 일투의 기대를 걸고 이에 호응하였다”(Ibid:323-24).

김태능과 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홍순만은 성교난의 원인을 직접적인 측면과 간접적인 측면 두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즉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1900년에 제주도에 부임한 봉세관 강봉헌의 혹심한 작폐와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세금의 과다징수를 들고 있으며 직접적 원인으로는 당시 구마술을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의 특수권력과 편승한 천주교도들의 횡포를 들고 있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44).

## B. 천주교회 측의 입장

이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유흥렬 교수와 김옥희 수녀를 들 수 있다. 유흥렬 교수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성교난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정치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있던 때에 제주도에서는 천주교가 크게 발전하여 도민들의 온갖 미신행위를 없이하려 하고, 봉세관이었던 강봉헌이 제주읍 성당의 복사였던 최형순 요안의 친구들을 부하로 써서 온갖 잡세를 걷게 하니, 드디어 도민들은 대정군수 채구석의 책동에 따라 봉세관에 대한 반감을 풀기 위하여 수백명의 교우를 죽이는 일은 일으키게 되었다”(유홍렬 1962:939).

이 성교난의 원인에 대하여 유홍렬 교수는 최선흥 신부가 쓴 ‘카톨릭 연구’의 기사를 인용, 참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중 일부를 여기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질투의 그 사탄은 불면불식으로 항상 그 기회만 엿보았다. 1901년(신축년)에 뜻밖에 본도에서는 처음으로 민란이 일어났다. 그 민란의 사유는 여러가지나 그 중요한 것만 기재하면 이조 5백년 말에 文弱政治의 폐가 이 섬에도 미쳤으니 주윤리와 도덕은 쇠하고 탐관오리들은 자기 私腹만 채우고자 하였고, 사회제도는 차례가 없게 되어, 관장도 정치에는 눈이 어둡고 私利에만 눈이 밝았던 시대에 이섬에 전에 없었던 한번호[강봉헌의 와전인듯]가 부임하여 어업세와 각 동리 공유지에 미신으로 받들던 수목과 신당과 목장과 또 국유지를 도민과 교우들에게 팔은 사실이 있다. 그들 매수한 교인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外人들이 신위로 받드는 수목과 사당을 채벌 파괴하였으니, 이 일로 인하여 동리의인과 교우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때 교우중에는 열심히 교우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유명무실한 교우와 아직 사리를 모르는 예배자들도 많았는데 이런 자들이 비리와 불법의 행동을 많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때 정부에서는 신부를 “如我待”하라는 칙령이 있는지라, 교우중에는 교리의 연구보다 무슨 권리나 편당이나 이익이나 관직을 구할까 하여 천주교를 이용할 목적으로 입교한 자가 많았으니, 이런 자들이 신부의 권리를 믿고 민간에 무리한 행패를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는 불평과 불만이 자못 커기 신축년 봄에 도민은 날로 심하여 가는 불량한 교우들을 물리치고 봉세관과 기타 직권 남용하는 불법한 무리들에게 반항코자 하여 자위민단을 조직하여 대정읍으로부터 대중을 모아 성내로 돌입하여…… (이하 중략)”(최선흥 1935:178-79).

이상의 기술에서 살펴볼 때, 제주 성교난의 원인은 봉세관의 흑심 불법한 납세와 급속도로 전파하여 가던, 천주교에 대한 반감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유홍렬 교수는 그때 한국에 전교하고 있던 프랑스 신부들의 힘으

로 편찬된 ‘한국에 있어서 카톨릭교’ (Le Catholicisme en Coree(1924년))라는 책의 기사를 근거로 들면서 성교난의 원인으로 다른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민들이 폐를 지어 성교로 나오게 됨에 따라, 무당(巫女)들이 그들에게 다니던 손님을 많이 잃게 됨으로써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터뜨려서 성교회를 비방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교난의 원인으로도 작용해 있다는 점이다”(유홍렬 1963:941).

또한 유홍렬 교수는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천주교인과 봉세관에 관한 여러가지 폐단의 조목들 [광무 5년 6월 21일 황성신문에 실렸던 황지연의 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미 2주일 전에 5백명 내지 6백명의 천주교인을 학살하고 아직 살기 충만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근 만명의 난민들로부터 청취한 것에 의거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이들 폐조를 정확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유홍렬 1963:382).

특히 천주교의 작폐로 열거한 조목은 그 대부분이 천주교인의 기본 신조인 천주신계에서 엄금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므로,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들은 천주교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훼방하고자 한 거짓 천주교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강변하면서, 제주도에서도 천주교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준비중에 있던 예비교인 7백여명 도민 중에는 이러한 간악배가 끼어 있었을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Ibid:382-83). 이를 입증하는 실례로 그는, 황성신문 광무 4년 12월 12일자 잡보 ‘濟民誰賴’라는 기사<sup>8)</sup>를 들고 있다.

유홍렬 교수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에 의거 종합적으로 신축년의 제주도 교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축년 교난의 원인으로는 수년대 거듭된 목사, 군수 등 관원의 착취와 도의 출신 봉세관의 남세와 이에 대한 본도민의 배타심과, 봉세관과 사설 상무사의 대립 갈등과, 천주교의 성행과 천주교인의 미신행위의 타파 및 정세관여와 이에 대한 유럽 및 무너들의 반감과 탐관오리에 대한 천주교인의 규탄과 관료의 천주교 질서와

8) “內部視察 丁裕燮氏가 濟州府에 到하여 民間情況을 周察하고 報告하되 牧使와 郡守의 牧斂公用條가 萬餘兩이오 該牧書記 高百齡이 木以奸吏로 投入西學하여 作弊於民間은 不可勝數오…… (이하 생략)”

일본 상인 및 상무사원의 결탄 등을 들수 있으나, 직접 성교난의 도화선적인 동기를 이룬 것은 관권을 배경으로 한 일부 도민 및 상무사원과 천주교인의 분쟁과 봉세관의 남색이었던 것이다”(Ibid:390)

유홍렬 교수의 입장을 참고로 하면서 확고하게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전시킨 김옥희 수녀는 ‘濟州島 辛丑年 教難史’의 序文에서 아래와 같이 신축년 교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제주도의 敎難사건은 민란의 범위까지 확대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의 토착인들과, 그 토착인 교리들, 경래 봉세관 및 유배 죄인들과 한편으로는 일인일 업자들, 또한 결국에 가서는 그곳에 선교를 위해 내도했던 프랑스 선교사와 그 신도들 사이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이었고, 또한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대단히 복잡한 상황과 원인으로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여건에서 생긴 대규모의 민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에 이 민란이 일어난 원인은 대정군수 채구석이 제주도 토착인 세력들을 규합하여 만든 사설 상무사원과 교인들과의 소규모의 감정적 대립이 확대되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이러한 대학살 사건은 단순한 교인이나 민간인들과의 충돌사건이라기 보다 제주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외부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한편 토착세력들이나 지방 관리들은 도민들로부터 경제적인 수취를 독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경래 봉세관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감과 반감을 노출하게 되었던 데서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고집하는 도민들의 반감 등이 새로 내도하여 선교를 시작하게 된 천주교에 대한 증오가 노출되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간 도민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지방토착관리들이 외부세력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했던 民擾의 성격을 지닌 사건인 것이었다”(Ibid:19-20).

그리고 그는 숨겨진 원인으로, 일본 식민주의의 한국 진출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축년 교난의 성격을 일본인들의 조종을 받은 일부 도민들이 새로 들어온 천주교인을 시기하여 일어난 참살사건이라고 규명하고 있다(Ibid:20-39).

또한 그는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봉세관의 작폐와 천주교 교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선교사들의 증언과 기록을 근거로 “토착인들의 증상과 협의로 그와 같은 고정관념과 인식을 가지게끔 책동되었고 그 선동의 결과 사실보다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나타났다”(Ibid:92)고 주장하고 있어 향

토사학자들의 보는 입장과는 아주 상이한 입장에서 이 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 양측 주장의 쟁점과 의문점

1901년 제주에서 발생하였던 이 성교난은 사건의 희생자가 너무 많았을 뿐아니라, 한 외래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반항으로 나타났던 점에서, 또 외국인 신부와 관련하여 국제문제로까지 발전하는 후유증을 치뤄야 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근대사에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민란에 대하여 천주교측의 사가들은 교도들의 희생을 강조하여 ‘辛丑敎難’ 또는 ‘濟州敎難’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난의 원인이 제주도내 토착세력들이 일본 상인과 사주, 선동한 것으로, 이 난은 한국사에 있어서 그 후진성을 근대세계에 폭로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김옥희 1980)고 규정하는 반면에, 향토사가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신부의 세력과 교회권력을 빙자하여 혹은 봉세관의 마름으로 갖은 횡포를 부린 불량한 교도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주동자인 이재수 등은 정의에 입각하여 도민 대중의 민생과 인권을 싸움으로서 지킨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다(김태능 1962:347-50).

이러한 입장은 결국 천주교측 사가들과 향토사가들의 입장으로 크게 대립되어 ‘敎難’이나? ‘敎亂’이나? 그리고 봉기했던 민중이 폭도냐? 의사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되어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즉, 1983년에는 제주도 소설가 吳成贊이 ‘마당지 4月号’에 “이재수亂의 제주도민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기사를, 1980년에 출판된 김옥희씨의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와 1982년 출판된 金泰能의 ‘濟州島史論’에 실려 있는 “聖敎亂”을 비교하면서 발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증견작가 玄基榮<sup>9)</sup>이 ‘문예중앙 1981년 가을호’에 “미리 쓰는 序文—제주 민란을 쓰면서”에서 이러한 두 입장을 거론하고 있다.

9) 1983년에 이 성교난을 소재로 ‘변방에 우짚는 새’라는 소설책을 창작과 비평사에서 냈음.

양 측 입장들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의미하는 것, 더 나아가 미래와의 대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주체인 인간 곧 민중중심의 역사로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교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해석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민중 곧 제주도민의 입장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천주교측의 교회의 입장과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그당시 천주교 신부의 기록과 증언에만 갖다 맞추기 급급하고, 향토 사가들의 입장은 난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이 없이, 일부 주동자만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천주교회의 폐해만을 설명하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난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양측 주장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문점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난의 원인을 필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사전발단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吳信洛노인의 죽음’에 대한 향토사가의 입장은 “천주교도들이 오노인을 포함한 3명을 천주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당으로 끌어다가 심한 매질과 고문끝에 오노인을 죽게 만들었다.”(Ibid:323)는 구치고문치사 사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천주교측은 당시 선교사의 보고를 인용해서 “오노인은 교당 구내에서 목매 자살한 것이고, 정의 목사가 자기 실책에서 벗어나 자기 지위를 지키려는 극한의 노력이었으며, 천주교에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김육희 1980:329)라고 단정짓고 있다. 당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민란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상한 기록을 남긴 金允植<sup>10)</sup>의 「續陰晴史」에는 “去月旌義教堂 捉囚前訓長 玄有又捉去吳姓人致死 或云打死 或云自縊 玄有珣 色中望土也……(중략)”,

10) 襄養 김윤식은 김홍집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있다가 1897년 12월 제주도에 종신유배 되었고 성교난후에서 知島로 옮겨졌다가 1907년 6월 특사로 귀경하였다.

續陰晴史 卷十上, 光武 5年 辛丑 2月 22日條, p. 550라고 기록되어 있어 오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가 김원영 신부에 의해 끌려가 매를 맞은 것만은 확실하다(김옥희 1980:230 재인용).

둘째로 상무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향토사가들은 외지 세력에 대항한 자구보호책의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반면, 천주교측 사가들은 일본 어업자와 결탁한 일부 지주층이 재산증식과 탐욕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째로, 황성신문에 실렸던 黃蓄淵의 ‘교폐’<sup>11)</sup>에 대한 내용으로 향토사가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천주교측 사가들은 기사 전체 내용이 그 당시 입도하여 전교한 제주도 천주교회 사정에 맞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특히 김옥희씨는 소위 ‘교폐’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목마다 천주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의 처첩을 간한 죄’는 제주도의 난잡한 결혼풍습이나 그 잠혼을 그 이유로 들면서 보고서의 소위 교폐란 실상 근거도 없고 그 당시 난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서 당시 폭도들이나 지방관리들과의 제책에서 짜 올려진 거짓보고서라고 분석하고 있다(김옥희 1980:232).

물론 양측 주장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이외에도 많지만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다. 이들의 주장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하면서도, 선입견 내지 편견에 빠져서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1) 皇城新聞, 光武 5年 6月 21日字 雜報.

- 1) 擅殺人命하되 官不得拿獲檢屍事
- 2) 私奪人之婦女하되 民不得開口事
- 3) 年久賣買田宅이 倍徙於時價者를 以木價勒奪事
- 4) 平民을 傳令促致하여 結縲毆打事
- 5) 平民處所報則不報하고 所推則勒推事
- 11) 任意斫取空地樹木事
- 12) 自捧稅官所出舍音하여 奪耕半民先執納稅之田事
- 13) 符同捧稅官하고 爲執稅監色하여 討索錢兩事
- 14) 自官捉去之罪人을 稱以教人하고 中路奪去事

또한 양측 입장이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자료 자체가 적합한지 곧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분석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의 입장에 맞는 것만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점은 특히 천주교측의 경우, 자기의 논리와 맞지 않으면 중요한 자료인 국내자료 등을 제시하다가 믿을 수 없다고 무시해 버리거나, 유추를 하는 등 아니면 제주도를 미개지라고 전제하여 기존의 문화와 전통신앙을 무시하는 등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편견에 사로잡혀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한다. 여기서 강하게 제기되는 의문은 천주교측 특히 김옥희씨가 주로 사용한 자료들[특히 당시 신부들의 서간문, 기록들]이 얼마나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난이 일어날 당시, 난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프랑스 신부들이 한반도내의 전반적 상황, 제주도 내 외의 정세, 그리고 당시의 도민들에게 전교활동을 하면서 빚어지는 도민과 천주교도들과의 여러 갈등 내지는 충돌등의 원인 및 경과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척박한 땅 제주도에 복음의 씨를 빨리 뿌려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선교사들의 주목적이었기에, 교회에 물려든 사이비교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등 일방적으로 천주교들의 입장을 들고 따르는 편이 아니었던가 하는 점을 능히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천주교측이 주장하는 난의 주요 원인 중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상무사는 일본인과 결탁하여 탐욕하려 했다는데 그 결탁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 전도민적으로 상무사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켜 제주성으로 쳐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민란의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은 체구서를 중심으로 한 상무사의 조직을 우선으로 들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사발통문을 통하여 각 마을 대표에게 전달하여 민중동원에 성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박광성 1968:재인용).

따라서 상무사라는 조직은 천주교측이 보고 있는 바와는 달리 오랫동안



대의적으로 많은 수탈과 압박을 받아오면서, 외지 세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일본인 어로업자의 침투, 관리의 가렴주구 등의 자극이 있을 때마다 단합하여 대처하였던 것. 곧 도민들의 자주적 역량이 점차 성장하여 외부세력에 대항한 자위수단의 조직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정진자 1983:87-88).

그리고 천주교측에서 소위 ‘교폐’라는 것이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부정하고 있는데, 난의 주동자(이재수·강우백 등)들이 내세운 이른바 천주교도들의 비행의 내용<sup>12)</sup>을 살펴볼 때 ‘교폐’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수 없었을것 같다. 물론 ‘황지연의 교폐’나 난의 주동자들이 내세운 교도들의 비행을 전부터 그대로 믿을 수도 없겠으나 그때 당시에 신부 구마실을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천주교도들이 민간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더우기 봉세관 강봉헌과 천주교도들이 공모하고 결탁한 듯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천주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까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었다.

또 향토사가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한국 전체 사회속에서 제주의 역사를 파악하기 보다는 수난의 입장에서 도민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나 민중들의 저항의 문제는 도외시해 버리고 천주교회의 폐해만을 사실보다 확대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신축 성교난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의 제주도 내의 정황을 검토하는 것이

12) 홍순만, “제주도의 역사-3, 조선시대의 민란”, 제주도/한국의 발견(서울: 뿌리깊은 나무, 1983), p.75. 첫째로, 천주교도가 사람을 죽여도 관가에서 체포하지 못했으며 둘째로, 천주교도가 남의 부녀자를 강탈하거나 강간해도 처벌하지 못했으며, 셋째로 천주교도들은 감옥과 형구를 멋대로 갖추어 놓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매를 치기도 하였으며 가두어 두기도 했으며, 넷째로, 천주교도가 관헌에 체포된 사람을 교도라고 하여 도중에서 빼돌리거나 옥에 갇힌 사람을 강권으로 석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교도를 비방하거나 교도와 언쟁을 벌이면 천주교를 모독한 행위라고 하여 천주교도가 교회로 끌고가 매질을 하였으며 여섯째로 천주교도들은 마음대로 땅을 빼앗고 제주도의 민간신앙과 직결된 신당을 파괴하여 토속신앙을 유린하였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다.

19세기 후반 즉 1876년에는 병자수호조약의 결과 쇄국정책이 붕괴됐고 동시에 일본과의 개항을 시작하였고, 1886년에는 한·불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구미열강에 의해 제국주의 진출이 시작되었으며,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조선은 식민지화 과정에 놓여 있었다. 특히 조선은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적 종속화의 와중에서 구미제국과의 불평 등 조약체결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인 신부와 천주교회를 국가기구와 동일한 역할과 지위로 인정하게 됨에 따들 천주교의 교세와 권위를 바탕으로 한 횡포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을 거치면서 국내의 정치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고, 1897년의 광무개혁은 봉건지배체력에 의해 제도상의 근대적 개혁만 이루어졌다는 성격을 지님으로써 오히려 봉건적 모순이 심화되었고, 수취구조의 개혁이란 명목아래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었고 봉세관의 파견은 봉건적 수탈기구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연속석상에서 이 난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지방관리들의 부패와 관의 가렴주구에 대한 그동안에 쌓인 불만의 표출, 둘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프랑스 신부들의 치외법권을 확대하여 조선인 천주교도들에게까지 적용시킨데서 오는 도민 특유의 공동체의식과의 마찰, 또한 봉세관과 결탁한 사이비 교도들이 조세징수를 담당했고 봉세관으로부터 경제적 이권을 부여받아 기존의 각 계층과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세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외래종교의 갑작스런 유입은 토착신앙체계를 위협하면서 전통적 가치체제인 유교와 민간신앙과 심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네째 프랑스 신부가 가지고 있던 치외법권, 급격한 천주교회의 세력확대 등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등이다.

#### IV. 신축 성교난의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

##### A. 신축 성교난의 경과(전개 과정)

민란이 발생한 당시의 제주도의 상황은 봉세관의 탐학, 관리들의 학정과 계속되어지는 흉년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 있었다(金錫翼, 耽羅紀年, 光武 3年條 및 光武 4年條). 민란의 발생과 경과를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민란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적 소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김윤식의 ‘속음청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01년(광무 5년) 2월 9일 旌義教堂에서 吳氏姓을 가진 노인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sup>13)</sup> 이어 그의 死因이 천주교도에 의해 致死·打死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와 함께 色中의 덕망있는 인사로 손꼽히는 현유순이 교회에 구금되었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Ibid:550). 오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가 金元永 신부에 의해 끌려가 매를 맞은 것만은 확실했다(김옥희 1980: 230 재인용). 따라서 이것은 도민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도민들은 나름대로 通文을 돌려 교회와 담판하려 하였고 천주교도들도 이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 5월에 이르러서는 대정군수 채구석과 郡民들이 함께 설립한 商務社와 천주교도 사이에 충돌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충돌사건에 대해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大靜副由吏 招引吳座首大鉉妓妾 事發告官 副由吏入敎者也 大靜守以奸妻妾之罪 決答三十四囚之 恐敎民有言 亦管朴(吳)座首十五度放之 敎人金進士聚黨五十名入邑面詰大靜守杖囚敎囚之故且曰 所謂商務社……”(金允植, 續陰晴史, 光武 5年 5月 8日條, p.558).

이상에서 기록된 것처럼 천주교인인 副由吏가 座首 오대현의 妓妾을 招引

13) 金允植, 續陰晴史(上), p.545. “聞旌義教堂 虐殺大民吳姓人民情憤鬱云”

한 것이 관에 고발되어 奸人妻妾之罪로笞 30을 맞고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천주교도인 김진사가 그의 무리 50여명을 이끌고 대정군수에게 와서 교도를 때리고 가둔 연유를 문의 성토했고 任意로 옥문을 열고 副由吏를 석방시킨 후 商會民을 잡아 간데서 마찰이 시작되었는데, 상무사에서라도 역시 무리를 모아 길에서 잡혀간 상회민을 구출하고 교도 7,8명을 구타하여 그중 두사람을 거의 사경에 이르게 하는 등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다.

5월 12일에 제주도민들은 진정단을 구성하여 직접 목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호소하기로 결의하고, 천주교인에게 첩을 빼앗겼던 오대현과 교회에서 죽은 오노인의 아들을 장두로 앞세워 제주성을 향하여 대정을 출발했다(Ibid:561).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천주교도들 수백명은 신부 구마실을 중심으로 14일 翰林洞 民會所를 찾아가 총을 쏘면서, 장두 오대현 이하 6명을 잡아 목사에게 넘겼다. 또 신부와 교도들은 대정에 입성하여 무기고를 부수고 총, 검, 포 및 화약을 분취하여 민당 몇 명을 죽이는 등 총포를 마구 쏘아 도민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였다(Ibid:561).

이에 격분한 도민들은 李在守의 지휘아래, 무장하여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고 대정으로 철수한 후, 마을에 격문을 돌려 장정들과 포수를 모았는데 하루만에 장정 수천명과 총포를 든 포수 마흔명이 가담하였다(Ibid:561).

5월 15일에 그들은 총검과 죽창과 몽둥이 등을 들고 모였는데 그 모인 군중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한쪽은 강우백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쪽으로 정의군을 거쳐 제주성으로 진격하고, 다른 한 집단은 이재수를 중심으로 서진, 곧바로 제주성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들은 가는곳마다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그 이튿날에 제주성밖 ‘蓋園’이라는 곳까지 이르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사람이 오가는 것은 물론 양곡이나 다른 물자를 반입하는 것도 막았다(Ibid:562-63).

성안에 있던 천주교도들은 관부의 군기고와 탄약고를 열어 무기를 가져다가 성위에 배치하고 4대문을 굳게 닫아 민란군과 맞서 날마다 서로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여 성안의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쌓인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Ibid:564-65).

이에 위급함을 느낀 프랑스 신부는 자국의 군함을 불러들이도록 電請하기 위해 교도 장운선을 목포로 보냈는데 (Ibid:568) 이것은 후에 이 민란이 국 제문제로 비화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때에 제주군수 김창수와 대정군수 채구석 등은 프랑스 신부를 설득하여, 그들이 납치하여 가두어 두었던 오대현과 다른 사람들을 석방하도록(23일) 하고 민란군과 천주교도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Ibid:569-70). 난리가 계속되므로 말미암아 성이 봉쇄되어 식량과 펄감의 공급이 중단되자 성내 읍민들은 동요하고 반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문을 열고 민당을 맞이할 것을 점차 주장하게 되었고, 신부는 군함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고 성내 읍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참지 못한 읍민들은 28일에 이르러 총포를 거두고 성문을 열었다(Ibid:573-74).

민당은 입성후 천주교도물을 색출하여 최형순과 같은 불량교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머지 천주교도들도 찾아내어 몰살시켰는데 (Ibid:573-74)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천주교도들과 선량한 읍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날과 그 이튿날(28, 29일)에 피살된 교도만도 삼백명에 이르렀으며, 이 민란으로 죽은 천주교도와 민간인을 합치면 그 수효는 5백명 내지 6백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신부 구마실과 문제만은 제주군수 김창수와 정의군수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Ibid:585).

## B. 신축 성교난의 결과와 事後處理

1901년 5월초 발발된 이 난은 프랑스 신부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프랑스 군함 2척이 5월 31일 제주 산지포에 입항함으로써 진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도내 천주교 신자 700여명이 관덕정 마당 등에서 참살되는 등 도내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뒤였다(홍순만 1983:77). 이 군함을 타고 신임목사 이재호가 도입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새로 파견된 察理使 황기연을 위시하여 제주군수 홍희와, 대정군수 허철, 그리고 윤철규 참령이 이끄는 대한군대 강화진위대 100명과, 수원병정 100명 등이 제주에 파견되어 본

격적인 수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1982:349).

찰리사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내걸고 그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있던 군중 10,000여명을 설득하여 해산케 했으며, 6월 11일에는 이 난의 주동자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을 잡아 가두고, 대정 상무사 대표로서 난 발생 전까지 도민들과 동조했던 대정군수 채구석과, 원성의 대상이었던 봉세관 강봉헌도 가두었다. 이에 도민들은 다시 모여 이재수를 위시한 주동자를 석방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주장은 들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곧바로 서울로 압송되었다(Ibid:349-50).

황성신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해 8월 1일부터 서울 평리원에서 제주 민란 관계자에 대하여 심리하기 시작하는데, 심리관으로는 법부교사 프랑스인 김 아시, 천주교 약현(현 중립동) 성당의 교사 정 가밀로, 궁내부 고문관 미국인 산드와 심지어는 제주사건의 주인공인 구마슬, 문제만 신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심리에 따라 10월 9일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에 게 사형판결이 내려졌고, 그밖의 관련자들에게는 곤장에서부터 징역 15년까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오성찬 1983:43).

그러나 예상의로 난의 주요 장본인적인 봉세관 강봉헌과 천주교도측은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으므로 십만 도민의 심중은 석연치 못하였다고 김태능씨는 밝히고 있다.

한편, 프랑스 공사의 배상 청구로 두나라 사이의 국제적 분류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공사 갈림덕(Collin de plancy)은 구신부와 문신부가 난리동안에 잃어버리고 파괴당한 것들에 대한 보상금 4,160원과, 고용인 피살 구출금 난중에 잡혀 죽은 구신부의 복사인 소년뭉 1천원 등 모두 5,160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Ibid:43),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김태능씨는 “이는 마치 교전국이 무조건 항복한 패전국에 부과시키는 배상과 같은 인상을 가지게 하는 바가 많다”(김태능 1982:344-46)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요구에 대하여 정부측은 만 3년동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결국 1904년 6월에 제주도민이 각 사

람당 15전 6리씩을 거둬 연 7문 5리의 이자까지 포함한 6,315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분류를 해결하였던 것이다(Ibid:346). 이 결과로 결국 제주도민들의 세금에 이돈이 덧붙여져 그리지 않아도 지나친 세금과 관리의 수탈에 찌든 그들의 살림을 더 조들리게 했음은 물론, 천주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도민들에게 계속 남아있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 공사와 우리 정부간에는 난중에 죽은 교인들의 매장지 문제로 상당기간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 마침내는 1903년 11월 아라동 부근의 황사평에, 성교난에 죽은 사람만 묻는 조건으로 결정되어 사라봉 및 대로변에 임시로 묻혀있었던 수백의 참살된 교인들의 유골은 황사평으로 이장하게 되었다(유홍렬 1962:935-36). 그후 이 묘지는 당시 피살자의 분묘뿐 아니라 점차 제주도 천주교인의 공동묘지로 변해갔고, 현재 천주교 공동묘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 C. 신축 성교난이 제주 선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제주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1908년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07년 이기풍 목사의 선교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07년에 제 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어 처음으로 배출한 한국인 목사 7인중의 한사람이었는데, 독노회의 결의에 따라 제주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것이다(강문호·문태선 1978:30).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하권에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큰 의의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장립한 목사중 1인을 특별히 하나님에게 바침으로써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자는 뜻이었다”(제주선교 70년 70년사 재인용).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이기풍 목사를 보냈던 최초의 선교의 장이, ‘신축 성교난’으로 천주교회가 피해를 입었던 제주도였다는 이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기풍 목사가 1908년 제주도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서 80년이 다 되어가는 제주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다. 돌이켜보면 1901년에 있었던 성교난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민심은 서양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 즉 반감, 적개심까지 갖고 있어서, 이기풍 목사를 중심으로 한 초기의 선교활동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와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다행히 그 시대적 상황이 본토에서 이미 기독교 선교가 허락되어 있는 때였고, 또 활발하게 선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관가에 의한 핍박이나 속박은 없었으나, 외래종교에 대한 반대와 적개심이 강한 본 도민의 핍박은 맹렬하였었다고 '제주선교 70년사'는 전하고 있다(강문호·문태선 1978:41).

그후 1908년 제주선교가 시작된지 21년후인 1930년 11월 14일, 제주노회는 전남노회에서 분리되어 독립노회를 형성하고, 새로운 제주선교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제주도의 교회수는 제주시 성내교회를 비롯한 17개 교회였다(Ibid:48).

그리고 제주노회가 조직되고 나서 해방되기까지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및 종교행사 간섭 등 일제의 박해로 교세는 부진하였고(강문호·문태선 1978:48), 1948년 4월 3일에 무장폭동사건<sup>14)</sup>이 일어나 교회와 교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sup>15)</sup> 등 제주 선교는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와 더불어 수천의 기독교 신자들이 제주도로 이주해 오게 됨에 따라,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11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등, 급격히 교세가 확장되었고, 기독교 전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0년도 제주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제주도민 중에서 불교, 기독교, 천

14) 이른바 4.3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소가옥이 39,300동, 희생자수는 40,000명.

15) 교회가 입은 피해로는 李道宗 목사의 17인이 희생되었고, 5교회가 소각되었으며 많은 교인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음.



주교 등 종교를 가진 신도수가 166,556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그중 불교 신도가 13만명으로 전체 종교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교인수는 36,418명으로 종교 인구의 22%로서 제주도 총인구 456,988명의 8%에 해당한다.<sup>16)</sup>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용준 교수는 기독교 제통 종교가 민간 속에 널리 파고들지 못한 것은 조상숭배와 범신신앙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현용준 1980),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유홍렬 교수의 지적처럼 제주도민들은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래로부터 신앙심이 강하여 어떠한 참되고 올바른 새로운 종교를 알게 되면 종래의 미신행위를 버리고, 이 새종교를 믿게 될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나(유홍렬 1962:937), ‘제주선교 70년사’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본 도민의 오해는 더욱 커졌고, 이때의 감정이 크게 작용되어 후일 천주교 뿐만 아니라 신교 복음전도사업이 크게 지장을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강문호·문태선 1978:30).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제주선교 저해 요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샤머니즘이나 무속 등 신앙의 큰 이질감에서 오는 연유였거나 도민들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아직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인 ‘신축 성교난’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향토사가 홍순만은 “난이 일어날 당시 천주교도들의 실지 횡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 가면서 교세를 발전시켜야 진

16) 참고로 1972년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 11,619명, 천주교 11,920명, 불교 111,558명으로 불교인구의 숫자에 비해 기독교나 천주교는 1/10에 해당될 정도로 미약하다. 강원도의 종교인구를 보면 기독교 219,158명, 천주교 58,380명, 불교 325,341명으로 제주도처럼 기독교, 천주교 교인 숫자가 약세에 놓여있지 않다. 현재도 제주도의 종교상황은 기독교는 열세에 놓여있는 처지이다.

실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익수 역시 “난의 직접 원인은 천주교의 잘못된 포교방법이었다.……도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식을 중심으로 사관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오성찬 1983:44) 천주교가 아직도 도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천주교가 제주도민들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은 지대하여 최초의 성당 설립지의 하나인 ‘정의홍로’에는 현재 천주교를 믿는 가구가 불과 數戶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늘날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 가운데, 프랑스군 혹은 로마군을 쳐부순다는 ‘건공장군설화’ 등은 그 당시 천주교 교폐의 한 단면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본다(정진각 1983:87).

또한 난이 일어난지 60년 후인 1961년 신축년에 당시 난이 발생하였던 안성, 인성, 보성리로 통하는 삼거리에 대정유지들의 이름으로 난에 교수형을 당한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등에 치하하는 뜻의 ‘濟州大靜郡三義士碑’를 세운 것(김태능 1982:349-50, 오성찬 1983:44)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선교 저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신축 성교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결론적 요약으로서 각 장에 걸쳐 다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이 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여 바람직한 제주선교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지으려 한다.

우리는 Ⅱ장에서 신축성교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왔다. 제주도 천주교 유입 직전의 정세는, 소란했던 국내정세 속에서 신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등 천주교회는 발전하고 있었고, 제주도내의 정황은 계속되는 민란의 와중에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1899년 제주도에 본격적인 천주교의 전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신축 성교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여기서 김태능을

중심한 향토사학자들의 입장과 김옥희 수녀를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회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양측 주장의 쟁점과 의문점을 노출시켜 제 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난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Ⅳ장에서는 신축 성교난의 전개과정 및 결과 그리고 이 난의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장에서 신축 성교난이 제주선교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신축성교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주선교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 어느 곳이든지 선교의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없이 기존의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취급하고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때, 그곳에는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교난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이 난의 확대에 큰 요인으로 작용된 ‘천주교의 교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교폐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전개한 전교활동에서 야기된 독선과 모순에서 빚어진 것이다. 더우기 프랑스 신부들이 자신들의 포교과정에서 과생한 부작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종교적 차원에서 수습하지 않고, 무기에 의한 위협 및 자국의 무력개입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결과 난은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데, 정부관리나 기업가와 결탁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그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할 때, 민중들은 교회를 적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당시 프랑스 신부들이 치외법권이 있음을 기화로 민중들을 무시했으며, 사이비 천주교도들은 봉세관과 결탁하여 도민의 세금을 받는 등 도민의 원성을 사서, 도민들의 모든 원한이 교회로 모여져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되었던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세째, 급격한 교세확장 등 지나친 숫자 위주 실적의 전도활동은 교회의 선교활동에 무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과 선교사업 2년만에 1,000명 가까운 신자를 내어 제주 인구의 1/20에 해당될 정도로 천

주교회는 급성장하였지만, 오히려 성교난이 일어나 오백명 내지 육백명의 천주교도의 피해를 내었고, 해방직후 제주도내 신자수는 겨우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 1982:635)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국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서구의 풍조와 유행이 거침없이 밀려오는 급변하는 제주도는 변화하는 내일에 대한 다각적인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민들과 교회측과의 사이에 아직도 좋지 않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현재 교회에 주어진 급선무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오성찬의 얘기에서도 증명이 된다(오성찬 1983).

“교황님 이 성안에는 문화와 의식 개발로 인해 예같은 무력충돌만 야기되지 않을 뿐이지 천주교인과 도민 서로간에 감정대립과 증오는 그냥 감춰져오고 있음을 알았으리라 여깁니다. 이런 감정을 무관심한척 시선을 피함으로 덮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행선상의 감정대립은 제 소견으로는 참된 뉘우침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회가 이러한 도민과 화해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제주 선교의 전망은 밝을 수도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도민들의 아픈 가슴, 그들의 한에 동참하고 그 맺힌 한을 풀어줄 때 비로소 교회는 도민들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도민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도민들을 위한, 제주도민에 의한 제주도민의 편에서 서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해 나갈 때 바람직한 제주선교는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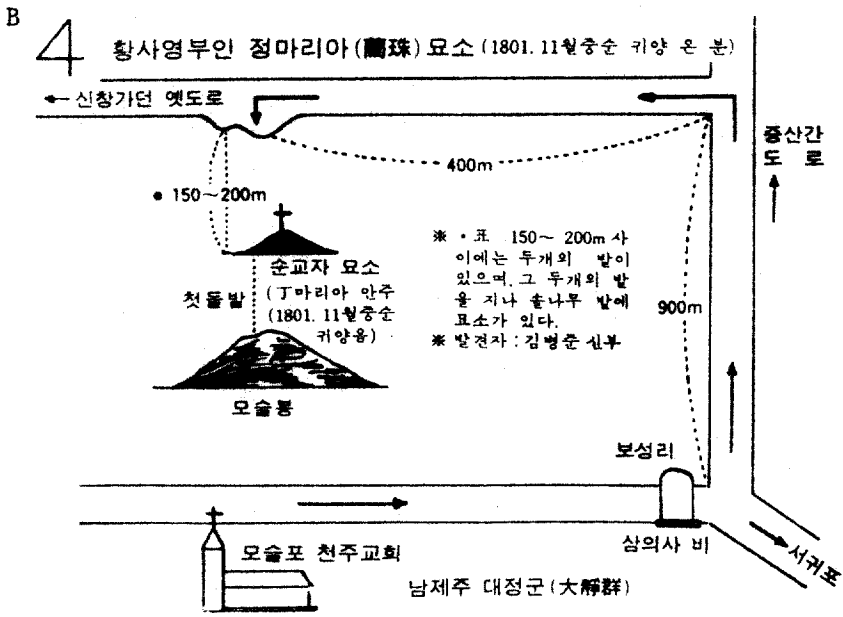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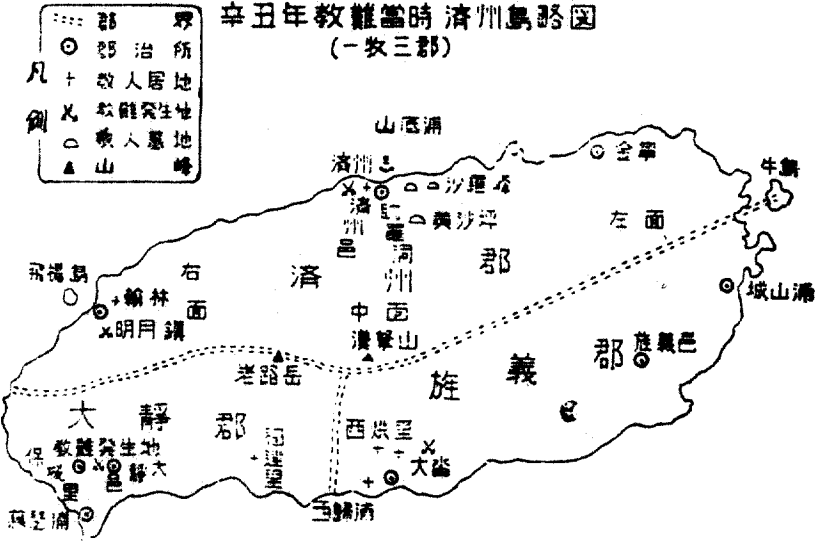
## 참 고 문 헌

金允植, 續陰晴史上·下, 韓國史料叢書 第十一, 국사편찬위원회,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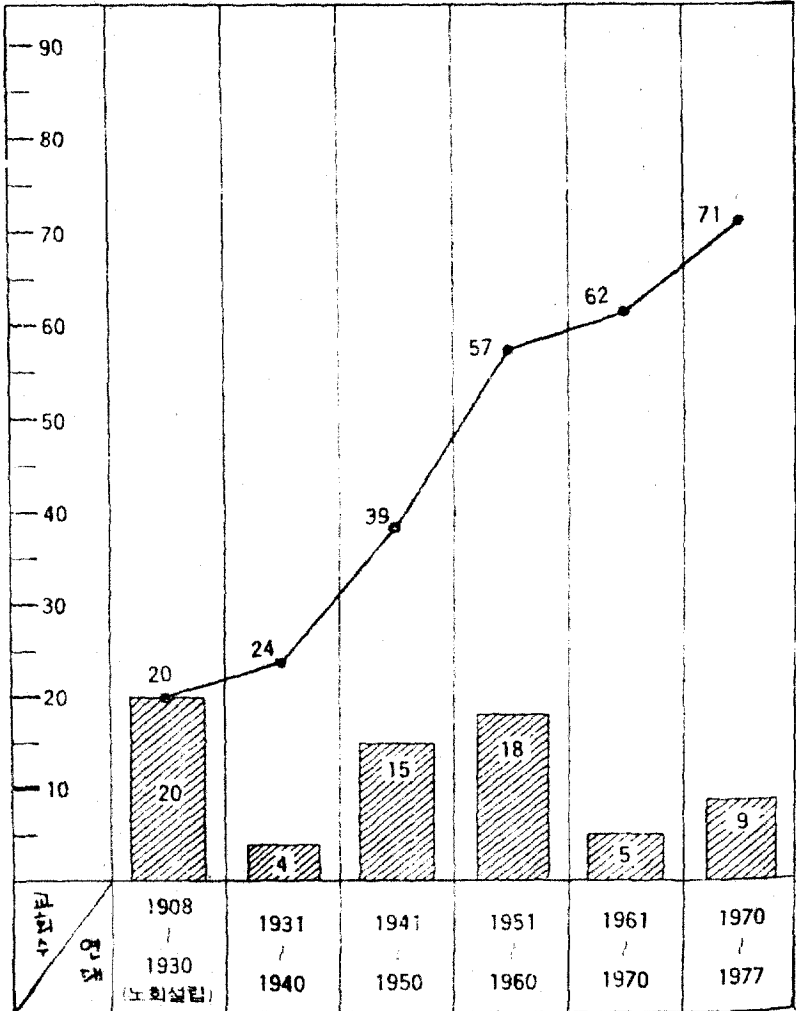
金玉姬, 濟州島幸丑年教會史, 제주천주교 제주교구, 1980.

- 柳洪烈, 韓國天主敎會史, 서울: 카톨릭출판사, 1962.
- , 高宗治下西學受難의 研究, 한국문화총서 10집, 서울: 율유문화사, 1963.
- 朱用厚, 濟州島誌, 서울: 백영사, 1976.
- 金泰能, 濟州島史論, 서울: 세기문화사, 1982.
- 姜龍三 外, 대하실록 제주 100년, 서울: 태광출판사, 1984.
- 康文昊·文泰善 編, 濟州宣敎 70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교회, 1978.
- 金錫翼 編, 增補耽羅誌, 1954.
-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 뿌리깊은 나무, 제주도/한국의 발전, 서울: 브리टे니커, 1983.
- 李浩蠶, 韓國敎會初期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 金良善, 韓國基督敎史研究, 梅山 기독교文化 연구총서 제 2 집,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金得梲, 韓國宗敎社, 서울: 海文社, 1963.
- 金昌文·鄭善 共編, 서울: 카톨릭코리아사, 1963.
- 박광성, “1901년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대하여”, 인천교대 논문집 2(1968), 59-81.
-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의 원인”, 부산여대 논문집 9(1980), 185-238.
- 鄭鎭玉, “1901년 제주민란에 관한 일고”, 한국학논집 제 3 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3), 77-91.
- 오성찬, “이재수란의 제주도민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당 4월호, 1983.
-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 제주도지(上)(下), 제주도, 1982.
- 제주시문화공보실, 제주시 30년사, 제주시, 1985.
- 최선홍, “제주도 학살사건과 본당연혁”, 카톨릭연구 1935.9.10월 합병호, pp. 177-82.
- 양정규, 탐라의 여명, 서울: 광명출판사, 1970.

부 록



연대별 교회 설립 및 성장표



※ 예  신설교회수

 증가수

교회설립 연대표

1908~1930(노회설립)		1943	西	好	教	會
연도별	교회명	1947	에	리	教	會
		1948	表	善	教	會
1908	성안교회(城內)	"	涯	月	教 <td>會</td>	會
"	三陽教會	"	江	汀	教 <td>會</td>	會
"	錦城教會	1949	歸	德	教 <td>會</td>	會
1909	朝天教會	"	板	浦	教 <td>會</td>	會
"	城邑教會	1950	衣	貴	教 <td>會</td>	會
1910	華瑟浦第一教會	"	飛	揚	島	教
1913	龍水教會	"	爲	美	教 <td>會</td>	會
1914	中文教會	"	新	山	教 <td>會</td>	會
1915	翰林教會(洙源)	"	月	令	教 <td>會</td>	會
1916	高山教會	"	杏	源	教 <td>會</td>	會
1918	法還教會	"	奉	蓋	教 <td>會</td>	會
1919	細花教會					
"	外都(內都)教會					(15교회)
1920	頭毛教會					
1921	挾才教會					
1925	金寧教會					
"	楸子新陽教會					
1928	西歸浦教會					
"	西歸浦第一教會					
"	城山浦教會					(20교회)
1631~1940		1951~1960				
1932	造水教會	1951	孝	敦	教 <td>會</td>	會
"	南元教會	"	甫	木	教 <td>會</td>	會
1937	大靜(仁城)教會	"	吐	坪	教 <td>會</td>	會
1938	武陵(永樂)教會	"	禾	北	教 <td>會</td>	會
	(4교회)	1951	모	솔	포	中
		1951	楸	光	教 <td>會</td>	會
		1951	新	村	教 <td>會</td>	會
		"	咸	德	教 <td>會</td>	會
		"	下	道	教 <td>會</td>	會
		"	道	頭	教 <td>會</td>	會
		"	漢	擊	教 <td>會</td>	會
		"	永	樂	教 <td>會</td>	會
		1955	永	시	온	教
		"	柑	山	教 <td>會</td>	會
		1956	瓮	浦	教 <td>會</td>	會
		1958	中	殿	教 <td>會</td>	會
1941	和順教會	1960	龍	興	教 <td>會</td>	會



1960 下 貴 敎 會 (18교회)		1971~1977(현재)	
1961~1970		1972	西 歸 浦 北 敎 회
1966	新 禮 敎 會	1973	덕 수 敎 회
"	벨 엘 敎 會	"	松 堂 敎 회
1969	濟 光 敎 會	1974	牛 島 敎 회
"	泰 興 敎 會	1975	동 남 敎 회
1970	西 光 敎 會 (5교회)	1976	納 邑 敎 회
		1976	於 道 (봉성) 敎 회
		1977	香 林 敎 회
		"	楮 旨 敎 회 (9교회)

연도별 교세 통계표(총회에 보고된 통계표에 의함)

구 분	연도별	1963	1971	1975	1976
교 회 수		58	61	64	68
목 사 수		10	18	21	23
전 도 사 수		27	26	33	35
장 로 수		47	52	72	76
세 레 교 회		1,735	2,804	3,701	3,836
유 아 세 레 교 인		—	666	848	886
학 습 교 인		551	697	1,162	1,179
원 입		4,157	6,398	7,549	7,712
총 계		6,527	10,661	13,386	13,747